



광남일보



조간 제780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음력 2월 20일)

전남도 17개 자치단체 '온라인쇼핑몰' 흥행

전남 농특산물 매출 '쑥쑥'...할인도 푸짐

입점 4112곳·회원 109만명
라이브커머스 판로 전략 통해

작년 남도장터 600억대 매출
농축어가·고객 모두 '윈윈'



'3월 설중매 한 톨' 광주·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 활짝 핀 홍매화 위에 봄을 시샘하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진행된 설 명절 기획전을 통해 100억원 매출고를 올리며 대박이 났다.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입점한 205개 업체의 862개 제품 상당수가 완판을 기록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해 시·군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선보인 것이 주요했다. 특히 연계 상품과 할인 혜택을 대폭 제공해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된 소비자의 기게 물가 걱정도 덜어줬다. 기획전에 참여한 순천 참한우 유통 차유립 대표는 "남도장터에서 기획한 설 명절 행사 덕분에 작년 설에 비해 매출이 8배가 늘었다"면서 "최근 경기부진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매출이 대폭 늘어 좋았다"고 말했다.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8일 현재 전남도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은 총 17개다.

전남도가 만든 남도장터를 비롯해 나주물(나주), 곡성물(곡성), 담양장터(담양), 고흥물(고흥), 보성물(보성), 화순팍(화순), 장흥물(장흥), 초록민음·강진쌀(강진), 해남미소(해남), 영암물(영암), 함평천지물(함평), 장성물(장성), 완도청정마켓(완도), 진도아리랑물(진도), 신안1004물(신안) 등이 있다.

소평물 가운데 고흥·강진 2·해남·진도 등 5곳은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위탁 운영 형태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매년 편의성 개선은 물론 할인전과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각각 설립해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들이 지역 농축어가 소득증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각종 기획전과 할인행사로 다양한 농수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매년 편의성 개선은 물론 할인전과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였고 이는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해남군이 운영하는 해남미소는 김장시즌을 맞아 '해남배추로 김장합시다'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전년대비 11억원의 매출 상승효과를 누렸다.

이밖에도 매월 3번째 수요일 진행되는 그린해피데이, '매월 1, 2, 3일은 찜시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미소청미소'는 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강기정 광주시장 초청강연
20일 오후 7시 호텔아트하임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이 3월 20일(목) 저녁 7시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서 열립니다.

이번 제13기 아카데미 개강식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제13기 아카데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간 10차례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원우기업 탐방과 문화탐방,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원우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 최상급 비즈니스장을 마련합니다.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7시
△장 소 :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 (구 벤틀리관광호텔)
△기타사항 : 오후 6시부터 식사 제공 (8층 레스토랑)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무국 (062-370-7090)
△주 최 : **광남일보**

영암서 구제역 3건 추가...방역 비상

전남 총 8건으로 늘어
"백신 접종 총력 당부"

영암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농장에서 10m 떨어진 농장 2곳과 500m 떨어진 농장 1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과 15일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 전 구제역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도는 바이러스가 강해 한 마을에서 전파도 빨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2000년부터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으나 백신 접종 등을 소홀히 해 구제역 확산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제역 백신은 통상 4월과 10월 두차례 접종하는데 보통 5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로써 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7건, 무안 1건 등 8건으로 늘었다. 사육 중인 소가 침 흘림, 식욕 부진 등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으며 정밀 검사에서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22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 등 10km 방역대에서는 접종을 모두 마쳤다.

500m 거리 한우 농가는 사료 차량이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함께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사료 차량을 통해 구제역이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 이후 7~10일 이내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도청 재난 상황실에서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발생 상황과 방역관리 현황, 백신접종 실적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가 발생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들 중 심으로 설정한 3km 방역대(이동 제한구역) 내에 있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해당 농장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길어지는 탄핵 정국...모두 지쳐간다

12·3비상계엄 여파 3개월째...헌재 역대 최장 심리

시민들 불안감·경찰 업무긴장도 ↑...정신적 고통도

"언제 끝날까요. 어떤 결과든 하루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사태 여파가 3달 넘게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경찰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리(소추·선고)는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넘어서는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특별기일의 선고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데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한 반응이 지역별·세대별로 엇갈리고 있지만 길어지는 피로감을 생각하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한 정국에 매 주말마다 곳곳에서 계속된 탄핵 찬반 집회를 비롯해 극단 분열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 피로감도 그만큼 길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탄핵 찬반 여부를 떠나 유력하게

예측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이 빗나가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실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499건이다. 이중 12·3비상계엄 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2달여간 계엄 관련 상담 건수는 350건(대면 178건·비대면 172건)으로 확인됐다.

상담 내용은 불면과 불안,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정지영씨(47)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저 답답한 심정이다"며 "결과가 어찌됐건 빨리 탄핵정국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토로했다. ▶2면에 계속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벤트정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장
주|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